

지역 소식통

정읍시, 중소 가공업체 '포장재 구입비' 지원

정읍시가 농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특산물 가공 포장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가공식품 유통에 필수적인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용기, 비닐, 스티로폼 포장재, 소秉백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특산물이나 임산물을 단순히 1차 가공하는 업체, 유사한 보조사업을 통해 이미 포장재를 지원받은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농수산유통과 농식품산업팀(063-539-6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추진

고창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부담이 되는 임대보증금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18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으로 최대 50백만원을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황윤석도서관 '인기폭발'

개관 2개월 차 주말 이용객 하루 1500여명... 열린 문화 공간 즐기는 인파로 인산인해



인구 5만명의 작은 소도시에 들어선 공공도서관이 주말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인구 5만명의 작은 소도시에 들어선 공공도서관이 주말이면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유명세에 더해 기존 도서관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모두에게 열린공간을 추구하는 고창황윤석도서관이 개관 2개월차를 맞고 있다.

28일 고창황윤석도서관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25일) 이용자가 1782명, 토요일(24일)에는 1403명으로 유명 맛집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주말이면 도서관 주차장과 인근의 공영주차장은 물론, 인근 도로변까지 도서관을 찾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의 최고 인기 비결로는 아름다운 건축미가 꼽힌다. 도서관을 설계한 유현준 건축가는 종모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깊이를 재해석한 목구조로 만들었다.

내부에는 지식의 산을 쌓아 올린 듯한 현대적 감각의 북마운틴 서가를 배치해 책을 찾아 읽는 즐거움을 배가 시키고 있다.

'찰칵', '찰칵', 곳곳에서 웃음과 셔터음이 터진다. 한쪽에서는 책에 열광을 파묻은 채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탐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스

듬히 앉아 만화책과 잡지를 읽는다. 공부하는 학생들, 신기한 듯 둘러보는 등산복 차림의 관광객과 인근지역 주민들. 생소한 풍경이자 이제껏 본 적 없는 장소다.

고창황윤석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린 도서관을 추구하고 있다. 열람실부터 따로 없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식 열람석과 서고와 북도 곳곳에 책 읽을 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유아 서가를 신경을 많이 썼다. 한 이용객은 "다른 도서관에 가면 조용한 분위

속에 눈치를 보느라 아이와 함께 오기 힘들었다"며 "여기는 편하게 쉬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 같아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도서관 한편에는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카페도 마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문화 수요에 대한 갈등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황윤석도서관 같은 열린 문화공간은 지역 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행안면,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성료

권익현 군수, 부안도약 위한 3대 추진전략 제시 등



부안군 행안면(면장 은진)은 28일 행안면 다목적체육센터에서 '결실창래(結實蒼來)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전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색 프로그램인 난타 식전공연과 행사에 신홍마을 채병석이장이 부안군 근공인재 육성장학금을 기탁하고, 행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출향인 등 4명이 고창사랑사당기부금을 전달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도약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부안형 바람연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안철도 시대 구축을 제시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대화를 진행했다.

행사후 권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경로당(송서, 산월, 검암) 현장 행정이 이어졌다.

은진 행안면장은 "부안 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안면민의 지혜를 모아 커다란 결실을 맺는 희망찬 한 해를 만들겠다"며 2026년 각오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줄포면, 2026년 결실창래 희망소통대화

부안군 줄포면(면장 최남권)은 28일 줄포면 다목적체육센터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면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소통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의 식전공연으로 줄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준비한 우물 텔레 공연을 펼쳤으며, 부안의 인재양성을 위해 근공장학금을 강남건설(대표 강도순) 금백만원 기탁과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동서산업(대표 장해자)에서 2백만원의 고창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최남권 면장은 2025년 주요성과보고로 '사람이 머물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위드(With) 줄포!'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주민들은 2025년 군정 주요성과 및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며, 올 한해 군정 구상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권익현 부안군수와의 희망소통대화에서는 면민들이 군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관광 유튜브 공모전 개최

세계적 담은 관광 영상 발굴... 수상작, 정읍시 관광 홍보물로 활용



정읍의 관광자원과 일상적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정읍시가 '2026 정읍시 관광 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정읍의 세계적 매력

을 전 국민의 다양한 시선으로 발굴·확산하고,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통해 관광 인지도를 높이며 전국 단위 방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응모 실적을 분석한 결

과에 따라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별 구분을 없애고 창의성·작품성·활용성 중심의 통합 공모·시상 체계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특정 부문 접수 미달 등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관광 홍보에 활용 가능한 영상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정읍의 세계적 중 2개 계열 이상을 담은 자유 주제'로 전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정읍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이 전체 분량의 80% 이상 포함해야 하며 3분 이내 영상 또는 숏폼 콘텐츠도 출품할 수 있어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접수 기간은 10월 1일 ~ 11월 16일까지로, 이메일(radow63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총 2500만원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사무소장 특별상 등 총 8편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또한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사무소가 특별상 시상 기관으로 참여해 내장산을 포함한 정읍의 대표 자연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촬영 협조와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정읍시가 타 시·군·구에서 정읍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주거 정착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시책이다. 정읍으로 전입한 청년이 이사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이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사 포장비용, 이사차 렌탈비 등이다.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주해 전입신고를 마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특히 2025년 7월 1일 이후 이미 이사를 마친 경우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세부적인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이번 지원이 정읍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a large graphic with the text '착한신고 112' and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You who reports are a hero). The ad lists benefits for reporting child abuse, such as protection for the reporter and support for the chil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ational Child Helpline (112) is provided.